

 보 도 자 료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			
보도 일시	2023. 3. 24.(금) 조간 2023. 3. 23.(목) 11:00	배포 일시	2023. 3. 23.(목) 06:00
담당 부서	해운물류국 선원정책과	책임자	과 장 이민석 (044-200-5740)
		담당자	서기관 안준영 (044-200-5745)

청년 목소리를 들어 선원 일자리 혁신을 이끈다

- 해수부, 24일 청년 선원 정책위원회 발족식 개최

해양수산부(장관 조승환)는 3월 24일(금) 14시 30분,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'청년 선원 정책위원회' 발족식과 함께 첫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.

이번 간담회의 목적은 국적 선원 일자리 혁신 정책에 대한 20~30대 청년층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함이다. 최근, 청년 선원들의 장기 승선 근무 기피*로 인해 국적선원의 수급 불균형과 급격한 고령화**가 진행되고 있다. 이에 해양수산부에서는 앞으로 '청년 선원 정책위원회'와 함께 청년 해기사들이 선원직에 매력을 느끼고 장기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.

* 해양대학교 등 지정교육기관을 통해 매년 약 2천여 명의 신규 국적 선원이 양성되고 있으나, 청년 해기사의 5년 내 이직률은 약 78%로 추산

** 2011년 국적 선원 중 60세 이상 비중은 약 21%였으나, 2021년에는 약 37%까지 증가

24일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주재하는 첫 간담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는 '청년 선원 정책위원회'에는 20~30대로 구성된 청년 선원 대표 3명과, 졸업 후 해기사가 될 예정인 해양계열 대학* 재학생 7명 등 총 10명이 참여한다.

* 국립한국해양대학교, 국립목포해양대학교, 국립군산대학교, 국립부경대학교

특히, 이 중 3명은 실제 근무 경험 및 현직 선원 인터뷰를 바탕으로 선원직의 장, 단점을 소개하는 유튜브*로 활동하고 있어 앞으로 청년들이 느끼는

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할 것으로 기대된다.

* (채널명) RAMP(구독자 11.2만명), VitaminSea(구독자 3.4천명), 셀리의 마린잡 인터뷰(구독자 1.3천명)

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은 "청년 선원들의 미래가 곧 우리 해양수산업의 미래라고 할 수 있다."라며, "해양수산부는 앞으로 청년 선원들의 시각에서 선원 일자리 혁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."라고 밝혔다.

